

필리핀 국제결혼여성의 이주흐름*

김정석**

이 연구는 한국에 이미 입국한 국제결혼여성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필리핀의 국제결혼여성들이 어떤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시집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다. 필리핀 신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자신들이 시집갈 수 있는 여러 국가의 하나에 불과하다. 국제결혼을 하고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 신부들에 대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자료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신부와 남편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매우 젊으며,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 수준이 낮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은 저학력자가 많다. 부부가 만난 경로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례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친지 및 제3자의 소개를 받은 사례와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사례가 많다. 필리핀 신부들의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을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국제결혼 이주 양상은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내에서도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단어: 국제결혼목적지, 국제결혼남성특성, 현지사회조사, 국제결혼이주

I.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은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 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로에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민여성 규모 확대와 국적 다양화는 현재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경제선진국에서도 관찰되고

* 이 논문은 2007년 동국대학교-서울 연구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필리핀 신부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질적 연구인 필자의 줄고 "필리핀 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사례연구(한국인구학 2009년 32권 2호)"를 참조하여 함께 읽기를 권한다. 논문편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고영미와 동국대학교 김태균에게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부교수 | chkim108@dongguk.edu

있다. 아시아 지역에 눈을 돌린다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여성들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발전을 이룬 여러 아시아 국가로 결혼이주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Piper and Roces, 2003; Constable, 2005; Kim, 2008).

국경을 넘는, 문화적 경계를 벗어난 민족간 결혼의 대규모화에 직면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정책적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으며, 학문적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과정과 적응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결혼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강유진, 1999; 김유경 외, 2008; 윤형숙, 2004; 이해경, 2005; 양순미, 2006; 정기선·한지은, 2009). 일부 연구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선택이나 성의 상품화라는 핵심어를 통해 결혼이주과정을 접근하기도 한다(김민정 외, 2006; 김현미, 2006). 이들 연구들이 국제결혼이주와 해당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송출국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중국 조선족 사회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현지 상황을 살펴본 설동훈 등의 연구(2005),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국제결혼선택과정과 이유 등을 살펴본 김정석의 연구(2009) 등은 송출국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필리핀을 사례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과 이들의 남편들 특성을 남편의 국적별로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신고집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한국인 남성과 결혼 신고한 필리핀 여성은 1,531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순위로 보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에 이어 필리핀 여성은 5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성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성들과 달리, 오래전부터 꾸준히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해 왔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다룬 논문에서 흔히 언급되는 집단이다.

필리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결혼이민 대상국가로서 한국은 눈에 띄만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대통령의 직속산하기관인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필리핀재외동포위원회: 이하 CF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 여성들이 국제결혼이주를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이며 한국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는 필리핀 신부의 입장에서 한국은 작은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여러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사회에서도 가족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

성요소이면서 개인의 행위와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논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필리핀의 기본적인 가구형태는 핵가족가구이며 기능이나 관계면에서 양가(bilateral) 확대형으로 정의된다(Medina, 2001; Panopio and Raymundo, 2004). 부부간의 관계는 양성평등적이라 볼 수 있으며, 결혼후 거주지는 양가 중에서 부부가 선택하였지만, 최근에는 독립적인 가구(neolocal)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 전통적으로 배우자 선택은 부모가 결정하였으나 이제는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여성들의 성취적 욕구와 경제적 필요가 증대되면서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사례가 많아지고 있다(Cahill, 1990). 필리핀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는 초기에는 서구사회, 특히 미국을 향했으나, 지금은 일본,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해 여러 국가로 향하고 있다(Ogena, Valencia and Roma, 2008).

이 연구는 필자가 2007년 하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머물면서 국제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조사한 사회조사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이렇게 획득한 사회조사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신부들에 대한 현지의 사회조사가 드물었다는 점, 동일한 대상들에 대한 심층면접결과(김정석, 2009)들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사결과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현지조사에 이 연구의 자료획득과정과 분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배경이다.

II.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출국하려고 대기 중인 필리핀 신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해외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출국전 소양교육프로그램: 이하 PDOS)를 이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의 CFO가 장기해외 출국 필리핀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CFO의 위임을 받아 소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구가 바로 Center for Overseas Workers(이하 COW)와 People's Reform Initiative for Social Mobilization(이하 PRISM)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PDOS 이수 확인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필리핀 신부들

은 출국이 저지될 수 있다(김정석, 2009)¹⁾.

연구자는 CFO, COW, PRISM 등의 기관장과 업무담당자의 협조 아래, PDO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설문조사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결혼일 반과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과정과 결혼후 생활에 대한 기대,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담고 있다. 설문지는 영어로 된 것과 타갈로그어(Tagalog: 마닐라가 포함된 루손섬에서 쓰이는 필리핀어)로 된 것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총 1,130부의 설문지가 2008년 3월부터 동년 6월까지 배포되었으며, 응답의 내용과 질에 상관없이 모든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 배포방식은 COW와 PRISM 직원이 PDOS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권유한 후 무기명으로 응답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 상당수는 응답내용과 질에 문제가 있었다. 주어진 설문문항에 대해 충실한 대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으며, 내적 일관성을 검토해 본 결과 설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응답을 무성의하게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설문지 응답의 양이 적고, 그 질이 낮은 이유로는 우선 응답자들의 해독능력을 들 수 있겠다. 설문지는 애초에 영어로 작성되었는데, 영어해독능력이 떨어지는 응답자들이 많아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어판과 타갈로그어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두려움을 들 수 있다. PDO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권유에 따라 설문에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가 자신들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결혼을 걸러내는 역할(상담을 통해)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필리핀 신부들이 응답내용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개업자나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이 진행되었을 경우, 이들은 아예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내용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신부들이 자신들의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적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특히 중개업자나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신부와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이전 결혼여부, 현재 자녀유무, 영어구사 수준,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 등과 함께 신부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있다. 필리핀 신부와 남편을 한 쌍으로 묶어 이들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1) 연구자의 졸고(2009)에서 PRISM 정식명칭을 오기하였음을 밝혀둔다.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여기서는 남편의 국적별로 신부의 특성, 남편의 특성을 따로 살펴기로 하였다. 남편과 신부의 조사항목을 결합하여 분석을 할 경우, 사례결측치가 많이 발생하여 분석에 가용한 사례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남편의 국적별 신부특성 분석, 남편특성 분석에 이용된 유효사례는 각각 674사례, 690사례이다. 분석은 일차적으로 이원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패턴을 알아본 후, 다원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조사자료 일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용된 변수는 모두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는 필리핀 신부의 결혼경험, 현재의 자녀 유무,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 등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신부의 결혼경험은 현재 결혼하게 된 남편이외에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현재의 자녀유무는 현재의 남편이외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필리핀 신부들이 이전의 결혼경험과 출산경험을 속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들 여성들은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에서 중개업자나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결혼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는 남편을 어디서 혹은 어떻게 처음 만났는가를 묻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개인이나 업체가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우편신부방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개업자나 알선업체를 통한 결혼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신부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중개업자나 알선업체에서도 이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것으로 자신의 결혼 과정을 소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만남은 이미 필리핀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ngeles and Sunanta, 2007).

필리핀 신부의 종교는 천주교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분하였다. 천주교가 아닌 경우 대부분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항은 천주교, 개신교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자신이 다닌 적이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통해 접근하였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초등 6년, 중등 4년, 대학교의 학제를 가지는데,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이 없다. 여기서는 중등이하를 다닌 경우를 최하로 놓고 '고등학교이하'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영어구사 수준은 신부 스스로가 자신의 영어가 어느 정도 인지를 세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아주 잘함' '어느 정도 잘함' '별로 잘하지 못함'으로 구성된다. 필

리핀 신부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필리핀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잘 사는 편'이라고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이분해서 접근하였다.

남편의 연령, 종교, 결혼경험, 현재자녀유무, 교육수준, 영어구사 수준 등에 대한 정보 역시 해당 신부가 제공한 것에 기반한다. 결혼경험, 현재자녀유무, 교육수준 등에 대해 신부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특히 소개업자를 통한 결혼),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다. 더욱이, 남편이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경우(대체로 부풀려서)도 없지 않음을 밝혀둔다. 남편의 종교는 신부들의 종교와는 달리, 천주교, 개신교, 그 외 종교로 나누어 접근한다.

Ⅲ. 남편의 국적별 필리핀 신부들의 특성

남편의 국적별로 필리핀 신부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²⁾. 여기에서 남편의 국적은 ①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② 동아시아 지역, ③ 기타지역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에는 미국, 캐나다 등이 다수를 점한 가운데, 독일,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이 모두 영어사용국가는 아니지만, 필리핀 신부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주한 곳이고, 소위 서구선진국으로 필리핀에서 알려진 국가라는 점을 들어 공통으로 묶기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이 주축을 이룬다. 한편 기타국가는 그 나머지 국가들로 매우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편의 국적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이 55.3%, 동아시아는 34.0%, 그 외 다른 국가가 10.7%이다. 기타 국가는 소수인데다, 동아시아 국적남편과 서구국가 국적 남편과의 비교에 집중하기 위해 논의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유효사례 전체에서 필리핀 신부들의 평균연령은 29.8세이며 남편과의 평균연령 차이는 11.8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 신부들 중 20세 미만이 5.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신부들의 비율은 동아시아 국적의 남편들에게서 높는데, 12.8%에 이르고 있다. 한편, 40세 이상 필리핀 신부들도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비율은 동아시아 국적의 남편들에게서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2)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필리핀 신부와 이들 남편들의 국적별 특성은 연구자의 줄고(2009)에 소개한 CFO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자가 제공받은 CFO의 자료 또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표 1> 남편의 국적별 필리핀 신부 특성

	전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기타
유효사례수	674	373	229	72
평균연령(세)	29.8	31.4	26.3	30.6
배우자와의 연령차이(세)	11.8	10.2	16.0	9.0
종교(%)				
천주교	80.4	76.4	88.2	76.4
개신교	19.6	23.6	11.8	2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신부의 이전결혼여부(%)				
결혼한 적 있음	15.4	17.7	10.9	18.1
결혼한 적 없음	84.6	82.3	89.1	8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신부의 현재 자녀유무(%)				
자녀있음	19.3	20.6	13.5	30.6
자녀없음	80.7	79.4	86.5	6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신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41.1	25.5	68.1	36.1
대학교	51.2	63.8	30.1	52.8
대학원이상	7.7	10.7	1.8	1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신부의 영어구사수준(%)				
영어 아주잘함	15.0	16.9	9.2	23.6
어느 정도 잘함	58.3	66.5	46.7	52.8
별로 잘하지 못함	26.7	16.6	44.1	2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				
부모형제	8.8	10.2	6.1	9.7
친지 및 제3자 소개	50.3	48.0	53.7	51.4
친척소개	14.8	16.9	12.2	12.5
친구소개	26.7	24.7	30.6	25.0
제3자소개	4.8	2.7	7.0	8.3
기타	4.0	3.8	3.9	5.6
인터넷	23.9	33.5	7.9	25.0
학교/직장	17.1	8.3	32.3	1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신부의 주관적 경제상태(%)				
필리핀에서 보통이거나 잘 살지 못하는 편	30.3	26.3	37.6	27.8
필리핀에서 잘 사는 편	69.7	73.7	62.5	7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국적별 부부간 연령차를 살펴보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국적의 남편과 동아시아 국적의 남편간의 차이가 분명하다.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필리핀 신부들의 평균연령은 26.3세로 다른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보다 평균연령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평균 16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과 그들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천주교(Roman Catholic)를 국교로 하고 있다. 유효사례 전체 중에서 80.4%가 천주교를 믿으며, 나머지 19.6%는 대부분 개신교를 믿으며 종교가 없거나 이슬람인 경우도 극소수 포함된다. 남편의 국적별로 보면,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에게서 천주교를 믿는 비율이 88.2%로 높게 나타난다. 필리핀 신부가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유효사례 전체 중 84.6%가 결혼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천주교가 국교인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무효(annulment)나 실질적인 장기별거가 그 대안이 되고 있다. 결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에게서 높다.

필리핀에서는 낙태를 법률이나 도덕면에서 금기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결혼과 출산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효사례 전체 중에서 자녀가 없다는 비율은 80.7%이며,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19.3%이다. 이는 곧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의 상당수가 본국에 자녀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자녀가 없다는 필리핀 신부들의 비율은 특히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평균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에 비해 젊고, 결혼경험이 없으며, 출산경험이 없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신부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체사례 중 51.2%가 대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며, 대학원이상을 다닌 비율은 7.7%에 이른다. 그런데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닌 비율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에게서 높으며,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에게서는 낮다. 한편, 영어구사 수준에서도 스스로 영어를 잘 한다고 평가한 여성비율은 남편의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 중에 영어를 아주 잘 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비율은 9.2%에 그치지만, 영어를 별로 잘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4.1%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학력수준이 낮으며, 영어구사 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전체 유효사례 중 부모형제 소개로 만난 비율이 8.8%, 친지 및 제3자의 소개로 만난 비율이 50.3%, 인터넷교제 사이트를 통해 만난 비율이 23.9%,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비율이 1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친지 및 제3자의 소개를 다시 세분해서 살펴보면 제3자의 소개(중개업자나 알선업체 포함)로 만난 비율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우편신부방지법(mail order bride law)에 의해 개인이든 기관이든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중개업자나 알선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난 경우에도 설문지에 그 사실을 알리기를 꺼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설문지가 PDOS 이수확인증을 발부하는 기관에서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개업자나 알선업체의 소개를 숨기고, 친구나 친척 등의 소개로 만났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현실로 인해 친척소개, 친구소개, 제3자 소개를 구분해 내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국적별로 볼 때 남편과의 첫 만남 경로는 제법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남편을 만났다는 비율의 경우,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은 33.5%에 이르는 데 비해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은 7.9%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학교나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비율의 경우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의 32.3%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의 해당 비율에 비해 4배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의 국적을 가진 남편과의 만남에서는 온라인교제 사이트가 주요한 경로가 되는 반면, 동아시아 국적을 가진 남편과의 만남에서는 국제결혼 알선업체 이외에도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만남이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신부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필리핀에서 자신의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나은가 혹은 못한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앞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사례 중 69.7%가 자신들이 필리핀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 비율은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에게서는 62.5%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 외에도 <표 1>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국적별로 필리핀 신부의 출생순위, 평균형제자매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존여부 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의 <표 2>는 앞에서 살펴본 남편의 국적별 필리핀 신부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원통계모형으로 접근해 본 결과이다. 여기서는 필리핀 신부가 남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살펴기보다는 이들의 여러 특성을 통제 한 가운데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과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하는데 집중하기로 한다.

<표 2> 남편의 국적별 필리핀 신부 특성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N=674)

	동아시아 vs.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vs.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b	s.e	b	s.e.
상수	2.028**	0.845	0.458	0.949
신부의 연령	-0.097***	0.019	-0.031*	0.019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0.033***	0.010	-0.018	0.014
신부의 종교(vs. 천주교) 개신교	-0.335	0.302	0.223	0.317
신부의 결혼경험(vs. 있음) 결혼한 적 없음	0.478	0.354	0.132	0.378
신부의 현재 자녀유무(vs. 있음) 현재 자녀없음	0.525	0.321	-0.704**	0.330
신부의 교육수준(vs.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1.500***	0.234	-0.542*	0.301
대학원이상	-2.580***	0.609	-0.284	0.482
신부의 영어구사수준(vs. 잘못함) 영어 아주 잘함	-0.683*	0.380	0.138	0.416
어느 정도 잘함	-0.816***	0.248	-0.467	0.337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vs. 부모형제소개) 친지 및 제3자 소개	0.686*	0.380	0.127	0.461
인터넷	-1.117**	0.457	-0.260	0.494
학교/직장	2.292***	0.439	0.467	0.564
신부의 주관적 경제평가(vs. 보통이하) 잘사는 편	-0.268	0.232	-0.050	0.297

주: * p<0.10, ** p<0.05, *** p<0.01

필리핀 신부들의 여러 특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교육수준, 영어구사 수준,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의 연령이 낮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도 크다. 신부의 종교(천주교 신자여부)는 남편의 국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신부의 결혼경험이나 신부의 현재 자녀유무 또한 다원통계모형에서 남편의 국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차이를 보여준다.

결혼경험이나 신부의 현재자녀유무는 신부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나 이전의 관계로부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이원분석과 다원분석에서 신부의 결혼경험이나 현재 자녀 유무 변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효과가 신부의 연령 속에 상당 부분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부의 교육수준은 다원모형에서도 여전히 남편의 국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대학교를 다닌 확률이 낮으며, 대학원 이상을 다닌 확률은 더더욱 낮다. 따라서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대체로 저학력의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다. 신부의 영어구사 수준은 신부의 교육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부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변수가 남편의 국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주어진 계수에 의하면,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에 비해 스스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평가할 확률이 높다.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 또한 남편의 국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친지 및 제3자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교제 사이트를 통해 남편을 만났을 확률은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신부의 주관적 경제평가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IV. 남편의 국적별 남편들의 특성

남편의 국적별로 필리핀 신부들의 특성이 다르기도 하지만, 남편들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의 <표 3>은 남편의 특성을 자신들의 국적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필리핀 신부들을 통해서 확보된 것으로, 필리핀 신부들 중에서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남편 측에서 거짓정보(예, 자녀유무, 교육수준 등)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해석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 한편, 제시된 특성 중에서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와 만난 경로 등은 필리핀 신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남편의 국적별 남편특성은 신부특성과의 대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어진 자료에서 남편들의 평균연령은 41.5세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의 평균연령이 42.4세로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남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부들의 특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 남편들과 이들에게 시집가는 필리핀 신부들의 연령 차이는 15.8세로 나타나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의 연령이 낮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남편들의 국적별 종교분포를 보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편들에게서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3>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도 천주교를 믿는 남편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미국 국적의 남편 중 상당수가 필리핀계 미국인(Fil-Am)으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당연히 기독교 이외에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들의 이전 결혼여부나 현재 자녀유무 등을 신부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발견된다. 남편들의 경우, 유효사례 전체 중에서 이전 결혼경험이 없는 초혼 비율이 58.4%이지만 신부들 중에서 초혼비율은 84.6%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자녀가 없는 비율은 남편들의 경우 64.5%이지만 신부들의 경우 80.7%였다(앞의 <표 2> 참조). 이상과 같은 결과는 초혼이며 자녀가 없는 필리핀 신부들이 결혼경험과 자녀가 있는 외국남성들에게 시집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편들의 결혼경험과 현재 자녀가 있는 비율은 국적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적의 남편들에게서 해당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면에서도 남편의 국적별 차이가 확연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적을 가진 남편들은 다른 지역의 국적을 가진 남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필리핀 신부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신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적의 남편과 이들의 필리핀 신부들은 다른 지역 국적의 남편과 필리핀 신부 부부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영어구사 수준은 비록 신부들이 평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편들에게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필리핀 신부 대부분은 자신들의 남편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표 1>에서도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필리핀 신부 자신들도 스스로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부간의 의사소통문제가 적지 않음을 예견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남편들의 영어구사수준은 이들의 교육수준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남편의 국적별 남편 특성

	전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기타
유효사례수	690	409	197	84
평균연령(세)	41.5	41.4	42.4	39.8
배우자와의 연령차이(세)	11.5	10.0	15.8	9.2
종교(%)				
천주교	44.5	56.5	15.2	54.8
개신교	33.6	38.6	24.4	31.0
그 외	21.9	4.9	60.4	1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이전결혼여부(%)				
결혼한 적 있음	41.6	43.5	38.6	39.3
결혼한 적 없음	58.4	56.5	61.4	6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현재 자녀유무(%)				
자녀있음	35.5	36.2	32.0	39.3
자녀없음	64.5	63.8	68.0	6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42.8	39.9	53.8	31.0
대학교	52.6	55.8	43.7	58.3
대학원이상	4.6	4.4	2.5	1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영어구사수준(%)				
영어 아주잘함	59.4	84.4	7.6	59.5
어느 정도 잘함	18.0	14.2	21.8	27.4
별로 잘하지 못함	22.6	1.5	70.6	1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와의 첫만남 경로(%)				
부모형제	8.3	10.0	4.6	8.3
친지 및 제3자소개	49.9	46.7	56.4	50.0
친척소개	14.5	16.4	12.2	10.7
친구소개	26.5	24.0	33.0	27.4
제3자소개	4.1	2.7	5.6	7.1
기타	4.4	3.7	5.6	4.8
인터넷	26.5	35.9	8.1	23.8
학교/직장	15.4	7.3	31.0	1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는 필리핀 신부의 경우나 남편의 경우나 큰 차이가 없다. 온라인교제 사이트를 통한 만남이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에게서 적은 점은 앞서 살펴본 영어구사 수준이나 교육수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만남의 매개 언어가 대체로 영어인 점과 인터넷 활용능력을 고려한다면, 영어를 잘 하는 비율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지역 남편에게서 이들 비

율이 낮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한편, 학교나 직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사례가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필리핀으로의 어학연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현지 기업설립 등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4>는 남편의 국적별 남편 특성을 다원회귀모형으로 접근해 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원분석과는 달리, 남편의 현재 자녀유무나 교육수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 남편의 연령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편들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를 통제한 탓으로 보인다. 즉, 두 지역의 남편들과 이들 배우자들 간의 연령 차이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이 다소 젊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배우자간 연령 차이는 역시 동아시아 국적 남편들에게서 크다.

남편의 종교는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에게서 개신교, 불교를 포함한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 동아시아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남편과 연령 뿐 아니라 종교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편들에 비해 필리핀 신부와의 결혼이 초혼일 가능성이 높다. 남편의 현재 자녀유무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자녀유무의 효과가 초혼여부의 효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동아시아 지역 남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초혼율이 높은 점은 이 지역의 남편들에게서 현재 자녀가 없는 비율이 높은 점과 연관되어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점은 남편의 영어구사 수준과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를 통제한 결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고학력자들은 저학력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학업, 어학연수, 현지기업과견 등으로 필리핀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에서 필리핀 신부를 만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 남편의 영어구사 수준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남편들은 배우자와의 첫 만남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만남은 적고, 학교나 직장에서의 만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남편의 국적별 남편 특성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N=690)

	동아시아 vs.		기타 vs.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b	s.e.	b	s.e.
상수	5.028***	1.412	1.644	1.032
남편의 연령	-0.150***	0.032	-0.042**	0.019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0.175***	0.031	0.038**	0.019
남편의 종교(vs. 천주교)				
개신교	1.612***	0.430	-0.006	0.293
기타	4.289***	0.537	1.293***	0.449
남편의 결혼경험(vs. 있음)				
결혼한 적 없음	1.111**	0.500	0.509	0.353
남편의 현재 자녀유무(vs. 있음)				
현재 자녀없음	-0.872	0.532	-0.978***	0.372
남편의 교육수준(vs.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0.560	0.369	0.501*	0.287
대학원이상	0.523	0.944	1.421***	0.511
남편의 영어구사수준(vs. 잘 못함)				
영어 아주잘함	-6.275***	0.610	-2.687***	0.557
어느 정도 잘함	-3.155***	0.560	-1.361**	0.581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vs. 부모형제소개)				
친지 및 제3자소개	-0.049	0.605	0.154	0.467
인터넷	-1.365**	0.700	-0.288	0.507
학교/직장	1.469*	0.744	1.218**	0.559

주: * p<0.10, ** p<0.05, *** p<0.01

V.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으로 결혼이주가 꾸준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결혼여성의 이주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물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이들 대부분은 목적국에 이미 입국한 여성들의 이주과정을 역추적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필리핀을 사례로 기원국(origin)의 여성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국적의 남편에게 시집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여러 목적국 중의 하나에 불

과하며, 목적국에 따라 남편과 신부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어진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자료분석 결과는 기존의 심층면접이나 연구자의 관찰과 일치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을 가는 필리핀 신부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시집을 가는 필리핀 신부들보다 젊을 뿐 아니라, 남편과의 연령차이도 크다. 따라서 이전에 결혼이나 출산경험을 한 비율도 낮다. 또한 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와의 첫 만남도 친지나 제3자의 소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온라인교제 사이트를 통한 경우는 적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집안도 가난한 여성들이 대체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을 간다는 뜻이 된다.

동아시아 국적 남편들의 연령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남편들보다 낮지는 않지만, 이들 신부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부부간 연령차는 크게 나타난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남편들에게서 초혼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남편의 교육수준으로 볼 때, 동아시아 남편들에게서 저학력자가 많은데, 이들은 결혼시장에서 덜 매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저학력 등으로 결혼시장에서 매력적인 상대가 되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의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한 셈이 된다. 배우자와의 첫 만남 경로는 다수가 배우자의 친지 및 제3자의 소개인데, 이 중 상당수가 결혼중개업자나 알선업체로 추측된다. 한편, 어학연수, 유학,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필리핀에 거주하게 되는 동아시아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필리핀에서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선진화된 서구문명권으로 그리고 백색피부로 인해 더 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all, 2001). 또한 이들 지역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동아시아와는 달리 문화적 이질감이 덜하고, 영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문제가 덜 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하다면,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그리고 남편들)은 동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

물론 국가간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이미 필리핀 여성들의 마음속에 배우자의 국적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이미 서구선진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필리핀계 이민자들 또한 본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리핀의 국내결혼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여성들은 국제결혼시장에서도 서구선진국에 거주하면서 배우자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춘 남편들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필리핀의 국내결혼시장에서 열등한 위치를 차지한 여성들은

그다지 인기가 높지 않은 지역, 매력적이지 않은 조건의 남편과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동일한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내에서도 남편의 국적과 특성에 따른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4.
- 김정석 (2009) “필리핀 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32(2): 1-27.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1-37.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진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보고서.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321-349.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Angeles, L. and S. Sunanta (2007) “Exotic Love at Your Fingertips: Intermariage Websites, Gendered Representation, and Transnational Migration of Filipino and Thai Women”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22(1): 3-31.

- Cahill, D. (1990) *Intermarriage in International Contexts: A Study of Filipina Women Married to Australian Japanese and Swiss Men* Quezon, Philippines: U. P. Population Inc.
- Constable, N. (ed)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ll, R. E. (2001) *Filipina Eurogamy* Quezon, Philippines: Giraffe Books.
- Kim, Doo-Sub (ed) (2008) *Cross-Border Marriages: Process and Dynamics*,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IPAR).
- Medina, B. T. G. (2001) *The Filipino Family (2nd ed)* Quezon, Philippines: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Ogena, N. B., Valencia, M. C. and G. M. Roma (2008) “Filipina Marriage Migration Streams to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edited by D.S. Kim *Cross-Border Marriages: Process and Dynamics*,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IPAR).
- Panopio, I. and A. Raymundo (2004) *Sociology: Focus on the Philippines (4th ed)* Quezon, Philippines: KEN INC.
- Piper, N. and M.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Oxford: Rowman & Littlefield

[2009. 9. 14 접수 | 2009. 10. 14 심사(수정) | 2009. 10. 29 채택]